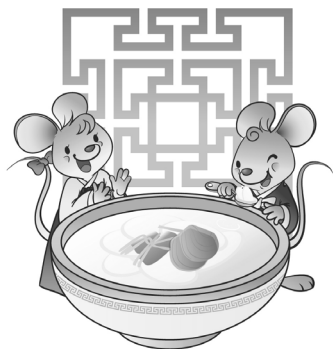




한식(寒食)의 세시풍속

강 욱

자유기고가

어느새 겨울이 가고 새 봄이 찾아 왔다. 유난히 추웠고 눈이 많았던 긴 겨울이었다. 반가운 봄소식 따라 길거리 위의 사람들의 모습도 마냥 가벼워 보인다. 봄의 전령사인 개나리가 만발하는 봄... 지금 현대인들은 봄의 자태를 만끽하고 있는 중이다.

과거의 우리 조상들도 이맘때면 분주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우리 민족 4대 명절(설날, 추석, 단오, 한식)의 하나가 이 시기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그것이 한식(寒食)이다. 한식은 동지로부터 105일째 되는 날로 음력으로로는 대개 2월이 되고, 간혹 3월에 드는 수도 있다. 대개 양력 4월 5, 6일쯤으로 나무심기에 알맞은 시기이다. 우리 나라에서 4월 5일을 식목일로 정하여 나무를 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식의 유래는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다. 고대의 종교적 의미에서 매년 봄에 나라에서 새불〔新火〕을 만들어 쓸 때, 그에 앞서 어느 기간 동안 묵은 불〔舊火〕을 일절 금단하던 풍속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기도 하고, 중국의 옛 풍속에서 찾기도 한다. 중국에서는 한식을 이른바 냉절(冷節)이라 한다. 사실 여기엔 슬픈 사연이 배어있다.

중국의 춘추시대 때 개자추(介子推)라는 진나라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문공(文公)을 모시고 있었다. 문공이 국란을 당하여 개자추 등 여러 신하를 데리고 국외로 탈출하여 방랑할 때, 배가 고파서 거의 죽게 된 문공을 개자추가 자기 넓적다리 살을 베어 구워 먹여 살린 일이 있었다.

뒤에 왕위에 오른 문공이 개자추의 은덕을 생각하여 높은 벼슬을 시키려 하였으나, 개자추는 그를 마다하고 면산에 숨어(혹은 19년을 섬겼는데 俸祿을 주지 않으므로 숨었다고도 전한다) 아무리 불러도 나오지 않으므로, 개자추를 나오게 할 목적으로 먼

산 에 불을 질렀다. 결국 개자추는 늙은 홀어머니와 함께 버드나무 아래서 타죽었다.

그 후 그를 애도하는 뜻에서, 또 타죽은 사람에게 더운밥을 주는 것은 도의에 어긋난다 하여 불을 금하고 찬 음식을 먹는 풍속이 생겼다고 한다. 이 날은 버드나무를 대문에 꽃기도 하고, 개자추의 죽음을 아파하여 불을 쓰지 않고 찬밥을 먹으니 냉절이라고 한 것이다.

한식날 하면 분명 연상되는 것이 있다. 바로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성묘를 하는 풍습이다. 이는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신라 때부터 한식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즉 한식날을 명절 중의 명절로 삼아 관리들에게 성묘를 하도록 휴가를 주었을 뿐 아니라, 이 날만은 어떠한 죄수에게도 형을 집행하지 않도록 금지했다고 한다.

중국에서는 한식날이면 예로부터 투계(닭싸움), 타구(공치기), 그네뛰기 같은 집 밖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오락을 즐기곤 했다고 한다. 우리 나라에서도 고려 때와 이조 초기에는 한식날 조정에서 큰 잔치를 베풀고 봄 놀이도 하여 이 날만은 즐겁게 지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차츰 이런 관습이 사라지고, 다만 성묘를 하는 날로서의 풍습만이 끊이지 않고 이어져 내려왔다.

옛 우리의 각 가정에서는 한식날에는 헤어졌던 온 가족이 모여 술과 과일, 나물, 떡, 어육 따위의 음식을 마련하여 조상의 묘를 찾아가 제사를 지냈다. 그리고 이 날, 낮을 보에 싸 가지고 가서 산소 근처의 풀을 베고 잔디를 입히고 산소를 말끔히 다듬었다. 이렇게 풀을 베고 묘지를 다듬는 일을 개사초라고 한다. 그러나 한식이 3월에 들면 개사초를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한식은 농경에 있어서도 중요한 시발점이었다. 농가에서는 청명(淸明) 날부터 비로소 춘경이 시작돼 이 날부터 채마전에 씨를 뿌리기 시작했으니 말이다. 또한 한식날은 군신백성이 일체감을 느끼는 날이기도 했다. 임금이 청명 날 나눠준 불이 신하와 각 고을 수령에게, 다시 수령이 백성에게 나누어주었다. '찬밥신세'라 불리는 이 습속은 온 나라의 마음을 밝히는 불이었다.

제주도에서는 어민들이 문 앞에 제상을 차려 놓고 그 해의 풍어를 비는 풍습이 있었고, 황해도 지방에서는 논이 샘물 나오는 곳이나 밭의 돌담에 밥을 해 가지고 가서 '독직이'에게 제를 지내기도 했다.

'독직이'는 논이나 밭에 있는 큰 구렁이를 말한다. 구렁이는 일반 농가에서도 '업구렁이'라 하여 집안의 살림살이, 즉 재물을 늘려주는 동물로 여기기도 한다. 이는 구렁이가 곡식을 저장해 두는 곡간에서 그 곡식을 축내는 쥐들을 잡아먹어 결과적으로 곡식을 지켜주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논이나 밭에서 구렁이를 '독직이'로



위해 주는 것은 집안의 구렁이를 엽구렁이로 위해 주는 것과 같은 생각이라고 볼 수 있다.

문 두드리는 소리에 놀라 돌아보니
 옥과(玉果)보다 좋은 신선한 차(茶) 보내왔네.
 맑은 향기는 한식(寒食) 전에 따서 그런가
 고운 빛깔은 숲속의 이슬을 품었네.
 돌솥에 물끓는 소리 솔바람 소리인 양
 자기(磁器) 잔(盞)에 도는 무늬 꽃망울을 토한다.

- 이제현 -

위의 시는 고려 때 문신인 이제현의 시로, 다도정신이 엿보인다. 한식의 계절적 매력에 한껏 빠져있는 작자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는 시다.

한식날 식도락은 비단 차만은 아니었다. 민간에서는 이 날을 전후하여 한식면(寒食麵)이라 하여 메밀국수를 해먹고, 죽탕, 죽떡 등을 먹기도 했다. 이 때쯤이면 산과 들에 어린 쑥이 많이 날 때이다. 이것을 캐다가 멥쌀가루에 섞어 버무려 찐 것이 죽떡이다. 물론 한식사리(한식날 무렵 잡은 조기)도 즐겨 먹었다.

한식 무렵이면 논밭갈이가 시작되고 본격적인 농사철로 접어든다. 또 이날 천둥이 치면 흉년이 들 뿐만 아니라, 나라에도 불행한 일이 있다고 하여 매우 꺼려했다.

봄별 따사로운 한식날 온 가족과 함께 손수 장만한 정성스런 음식으로 조상님 묘에 찾아가 보자. 4월을 뜻 깊게 보내는 동시에 봄의 향취를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